

三韓의 복식에 대한 연구

- 「三國志」 魏志 東夷傳을 통하여 -

정혜경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A Study of Costume in Three Han Era

- researching into the 「Samkukgy」 Tonggyjeon -

Hye Gyung Chung, Associated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ostume of Three Han to be recorded in 「Samkukgy」 Tonggyjeon. They were written tattoos, broad head, physique, hair style, dress, accessories-Insu, beads, head dress, shoes and cloths in Tonggyje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attoos were common in Three Han. Those may be carved by chinese ink on body except a face. Broad head was Byonhan and Jinhan's customs. The physique of Mahan and Byonhan's men was tall and big. The hair style was just topknot not to put on a hat in Mahan, long hair in Byonhan and short hair for slaves in Jinhan. And then tattoos, flat head and skull, long hair style were the southern style.

The dresses were two piece style-po and trousers. The shoes were made of leather. Those were the northern style.

Eui-Chek, In-Su were royal gift of china.

And they put valuable on beads, not gold, silver and golden embroidery cloths. This wa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And so we can find the variety of cultures at that time. The varieties came from the southern, northern, china and unique style.

Key Words : Samkukgy, Tonggyjeon, Three Han, broad head, Eui-Chek, In-su,
삼국지, 동이전, 삼한, 편두(偏頭), 의책(衣幘), 인수(印綬)

I. 서론

우리나라 고대 복식에 관한 연구에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측의 문헌자료와 유물이나 벽화 등의 실증적인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고구려벽화는 복식의 구체적인 형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녀 고대복식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 우리나라 고대복식에 대한 인식이 북방계 복식유형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낳았다. 그런데 우리 고대복식에는 남방계복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흔적들도 많으며,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삼한사회¹⁾의 복식을 통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삼한의 복식에 대한 연구는 유희경의 연구에서 개괄적으로 소개되는 정도였으며²⁾, 주로 「삼국지」, 「후한서」 등 중국사료를 통하여 풍속사적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³⁾. 다만 최근 고고 유물의 발굴성과에 힘입어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대부분 4세기 이후의 금속제 투구나 갑옷, 관, 신, 과대 등과 구슬류를 포함한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에 관한 연구들로서 복식 전반에 대한 연구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⁴⁾. 이처럼 삼한의 복식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복식관련 사료나 유물자료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마한과 변·진한이 각각 백제와 신라세력에 편입되므로 삼국의 부속적인 위치로만 인식된 데 기인하기도 한다.

삼한사회에 대한 문헌자료로는 「三國志」, 「後漢書」, 「晉書」, 「通典」, 「翰苑」, 「太平御覽」, 「日本書紀」,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이 있다. 중국사료 중 「三國志」⁵⁾ 魏志 東夷傳은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삼한사회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꼽히고 있으며 「후한서」는 劉宋代에 고쳐지은 것으로 「삼국지」에 근거를 두어 내용상 중복되는 곳이 많지만, 일부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보충하여 왜곡시킨 경우도 있으며, 「삼국지」의 기록이 「후한서」의 기록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 그 외 중국 문헌은 「삼국지」와 「후한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에

비해 「삼국지」는 3세기 당시 삼한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심되는 사료로서, 4~5세기의 유물인 고구려벽화보다 앞선 시기의 한반도 고대복식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삼국지」에 기록된 복식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은 「삼국지」 동이전의 삼한 복식관련 기사를 검토함으로써 고대 삼한사회 복식의 실상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 고대복식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북방적 문화 요소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특성이 존재하였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고찰로서 「삼국지」 동이전에 수록된 삼한의 복식 관련 내용을 검토 분석하며, 「후한서」 동이전을 참고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동이전에 함께 수록된 부여, 고구려 및 왜는 동시대의 주변국이므로 상호관련성이 있는 내용은 함께 비교 고찰하였으며, 고고학적 유물자료로 문헌 기록을 보완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동이전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신체적 특성(문신, 편두, 체격, 두발), 두식, 의복, 장신구, 신, 직물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하지만 삼한의 복식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이라기보다는 「삼국지」에 기술된 내용에만 한정되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II. 삼한과 「삼국지」 위지 동이전

3세기 무렵 중국은 漢이 멸망하고 분열과 혼란이 거듭되는 위진남북조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3세기초에는 魏, 蜀, 吳가 건립되었으며, 3세기 중엽에는 西晉이 건립되어 삼국이 하나로 통일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漢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前漢의 武帝(기원전 141~기원전 88)가 설치했던 4군이 축소되어 낙랑군만이 남아있었으나, 建安중(196-219)에 대방군이 설치되었으며, 그후 景初 2년(238)에 낙랑·대방 2군은 魏의 관할하에 들어갔다.

「삼국지」의 동이전은 이러한 3세기 중엽의 시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지리, 종교 등 여러 측면에서 광범위한 내용이 비교

적 객관적으로 기술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삼국지」는 편찬자인 陳壽가 직접 보고 적은 것이 아니라 낙랑군이나 대방군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기록된 것으로서 使譯을 통하거나 「魏略」의 기사를 채택하여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⁷⁾. 본 연구에서는 「삼국지」 동이전의 삼한관련 기사 중 복식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 번역하여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부록〉 참고).

동이전에는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부여, 고구려, 옥저, 예맥, 한에 관하여 다양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삼한관련 내용에 있어서 마한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변한과 진한의 경우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하여 삼한 관련 내용은 종종 韓傳의 단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삼국지」 동이전 한전의 단락은 宋代에 한전-진한전-변진전-변진전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체계는 조선총독부판 조선사본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첫 번째 변진전의 내용을 「후한서」에서는 진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그동안 이를 진한관련기사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천관우는 첫 번째 변진전은 변한과 진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며 두 번째 변진전만이 변한에 한정된 기사라고 보아, 이 단락을 수정하여 한전-마한전-변·진한전으로 편성하였다⁸⁾. 본 연구에서는 진·변한의 문화적 유사성이 이미 고고학적 유물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제연구자의 검토결과도 천관우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따랐음을 밝혀둔다.

「삼국지」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당시 삼한사회는 각 지역에 70여 소국들이 산재하여, 고구려나 부여에 비해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각 읍락의 장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다. 동이전에 기록된 삼한의 사회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마한은 50여국 단위의 연맹체로서 성곽도 없으며 소와 말을 탈출 모른다는 등 진·변한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낙랑·대방과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되었거나 혹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내용일 것으로 추측된다⁹⁾. 2~3세기에 변한 지역은 김해의 가야국을 중심으로 변한 소국연맹, 즉

전기가야연맹¹⁰⁾을 이루고 있으며, 그 세력 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다. 진한은 '변진한은 잡거하며 의복 거처가 진한과 같고 언어 법속도 비슷하다'고 하여 변한과 가까운 관계로 서술되어 있다. 실제로 3세기까지의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유물이나 유적은 묘지, 토기, 철제무기,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공통성이 많다.

또한 삼한사회는 낙랑 및 중국, 왜, 북방지역등 동북아시아 전역과 국제적인 대외교류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중국과의 대외교류는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낙랑을 상대로 매우 활발한 교섭을 행하였으며¹¹⁾, 왜와의 교류흔적도 영남해안지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삼한을 형성한 주민층이 북방에서 이주해 온 자들이라는 북방이동설은¹²⁾ 그 문화가 북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삼국지」에는 삼한의 문화가 북쪽에 있는 고구려나 부여에 비해 상당히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은 북방적 문화요소가 약한 반면 남방적 문화요소가 확산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삼한사회의 문화속에는 다양한 모습이 혼재되어 남방, 북방, 漢문화적 요소가 모두 발견된다.

Ⅲ. 「삼국지」에 기록된 삼한의 복식문화

「삼국지」 동이전에 기록된 삼한의 복식관련 기사를 신체적 특성, 두식, 의복, 장신구, 신, 직물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1>과 <표 2>는 각각 마한, 진한과 변한의 복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후한서」의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1. 신체적 특성

「삼국지」에는 삼한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문신, 편두, 체격, 두발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 중 문신은 삼한에 공통적이며, 편두는 진·변한의 특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후한서」에는 진·변한관련 내용에 있어서 주체가 바뀌어져 문신은 변한의 풍습으로, 편두는 진한의 풍습으로 기술되

<표 1> 마한의 복식관련 기사

		「삼국지」	「후한서」
신체	문신	남자는 때때로 문신을 한다.	남쪽 경계가 왜와 가까운 곳에는 문신한 사람도 있다 (其南界近倭 亦有文身者).
	두발	머리카락을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내는데 마치 경병(兵)과 같다.	대부분 머리카락을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내어 놓는다 (大率皆髡頭露紒).
두식	그 풍속이 의(衣)와 책(幘)을 좋아하여 하호들이 군에 조알할 때 모두 의책을 가(假)하였다.		
의복	베로 된 포를 입는다.		베로 된 포(布袍)
신	가죽신을 신고 날새게 걸는다.		초리(草履)
장신구	인수	(위나라는)경초중에 여러 한국의 신지들에게 읍군의 인수를 더하여 주고, 그 다음사람에게는 읍장의 (인수)를 주었다..... 하호들이스스로 인수와 의책을 한 자가 천여명이 되었다.	
	구슬	구슬을 보배로 삼아 옷에 꿰매어 장식하거나 목에 걸고 귀에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오직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고 목에 걸고 귀에 늘어뜨렸다(唯重瓔珠 以綴衣爲飾及懸頸垂耳).
	금은	<금은과 금수(錦繡)는 귀히 여기지 않는다.>	<금보라 금계는 귀히 여기지 않는다(不貴金寶錦繡).>
직물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줄을 알고 면포(縣布)를 짠다. <금은과 금수(錦繡)는 귀히 여기지 않는다.>	마한인은 농사와 양잠을 할 줄알며 면포(縣布)를 짠다 (馬韓人知田蠶 作縣布).	<금보라 금계는 귀히 여기지 않는다(不貴金寶錦繡).>

<표 2> 진한과 변한의 복식관련 기사

		「삼국지」		「후한서」	
		진한·변한	변진(변한)	진한	변진(변한)
신체	문신	왜와 가까우므로 남녀는 역시 문신을 한다.			그 나라가 왜와 가까이 있어 문신한 사람이 조금 있다(其國近倭 故頗有文身者).
	편두	아이가 태어나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려 한다. 지금의 진한인은 모두 편두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납작하게 되도록 하려고 모두 돌로 눌러 놓는다(兒生欲令其頭扁 皆押之以石).	
	체격		그 사람들의 형체는 모두 크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신체가 장대하다(其人形皆長大).
두식	(漢人)포로가 되어 모두 머리를 깎이고 노예가 된 지 3년이나 되었다.	머리카락이 길다.		머리카락이 아름답다(美髮).	
의복		의복과 거처는 진한과 같다. 의복은 깨끗하다.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살며 성곽과 의복은 모두 같다(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의복은 깨끗하다(衣服潔清).	
직물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는 법을 알아 겸포(縑布)를 짠다.	또 광폭세포(廣幅細布)를 짠다.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줄을 알고 겸포를 짠다(知蠶桑 作縑布).		

어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삼국지」 한전의 단락 체계상의 문제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혹 일부분은 「삼국지」가 참고하였을 「위략」의 기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¹³⁾.

1) 문신

문신은 삼한에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 고구려나 부여 등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삼국지」의 편자는 삼한의 문신이 고유한 풍습은 아니며, 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마한의 '남자는 때때로 문신을 한다'고 하거나 진·변한의 '남녀는 왜와 가까우므로 역시 문신을 한다'고 하여 왜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후한서」 역시 마한에서 왜와 가까운 곳에는 문신한 사람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삼한의 문신은 왜의 영향을 받아 일부 지역에 한하여 행해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삼한의 문신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 왜인전의 문신풀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이전의 왜인전에는 비슷한 시기의 女王國과 狗奴國에서 행해진 문신의 색과 형태 및 신체 부위, 문신의 목적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 (女王國)以朱丹塗其身體.....
- 其南有狗奴國 男子無大小皆黥面文身 諸國文身各異 文身亦以厭 大漁水禽 後稍以爲飾 或左或右 或大或小 尊卑有差

먼저 여왕국에서는 신체에 붉은 색으로 채색하였는데, 채색 역시 문신의 한 종류에 속한다. 적색으로 신체에 채색하는 풍습은 옛부터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왔으며, 오늘날에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반면 여왕국 남쪽에 있는 구로국의 남자는 문신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경면문신을 한다고 하였다. 또 문신은 초기에는 큰 물고기나 물새가 혐오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을 보호하기 위한 주술적인 목적에서 행하여졌지만 그 후에는 점점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문신을 하는 위치는 왼쪽 혹은 오른쪽의 차이가 있으며, 문신의 크기도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 이로서 존비의 신분 차이를 표시하였다.

를 표시하였다.

이상에서 왜와 삼한의 문신풀음을 비교해 보면, 여왕국에서는 채색을 하였으며 구로국에서는 경면문신을 하였고 삼한에서는 문신을 한다고 하였다. 구로국의 경면문신이란 얼굴과 신체에 새기는 것으로 일본이나 중국등 동아시아에서 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는 습속이었으나, 고대 중국에서는 黥은 얼굴에 죄명을 새기는 형벌(黥刑)을 말하는 것으로서 결코 긍정적인 풍습으로만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¹⁴⁾. 따라서 삼한의 문신은 여왕국과 같은 채색은 아니며, 구로국의 문신과 유사하나 경면은 아니므로 얼굴을 제외한 신체에 무늬를 새겨 넣는 入墨 문신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 왜의 경우 문신을 하는 목적이 처음에는 주술적인 것이었으나 점차 장식이나 신분의 표식이라는 목적이 추가되어 주술적, 장식적, 사회적 목적의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삼한에서의 문신 역시 이미 주술적인 목적뿐 아니라 장식이나 신분표식의 목적으로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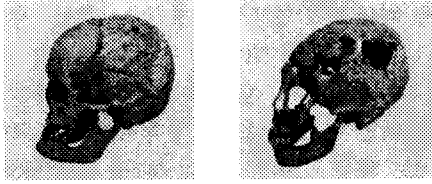
그런데 마한보다는 진한과 변한에서 문신을 하는 경우가 성별이나 빈도상에 있어서 다소 확산된 것으로 기록된 점은 왜와의 밀접한 교류관계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삼한이 모두 문신을 하는 습속은 지닌 것은 남방문화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 대쪽모양 동기에 새겨진 손과 사슴 그림 세부 (국립청주박물관, 한국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14~15)

한편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유물중에는 이와 같이 入墨 문신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 삼한의 문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산 동서리에서 발굴된 대쪽모양 銅器들에는 각각 사람의 손과 사슴 그림이 동일한 문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그림 1), 이 두 문양은 시베리아일대의 샤머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⁵⁾. 손에 새겨진 문양은 곧 사슴의

점문양과 동일하여 입목문신한 것으로 보이며,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정상두개골과 편두
(김해의 고분문화, 91)

2) 편두

편두는 古代韓族 내지 동북아시아족의 특징이지만¹⁶⁾ 남방아시아에서도 그 풍속은 있었다. 「삼국지」에는 이 풍습이 변·진한의 공통적인 습속이며, 특히 당시 진한인의 남자는 모두 편두라는 점이 부각되어 있다. 그에 비해 「후한서」에는 편두 풍습이 진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록되고 '지금의 진한인은 모두 편두이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이 편두 풍속은 고고학적 출토유물로 입증되어, 4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김해 예안리 85호분에서는 성년 여성의 인골 가운데 30%가 편두로 확인되었다¹⁷⁾(그림 2). 그런데 예안리는 변한지역에 해당하므로 이는 진한과 변한의 공통적인 풍습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삼천포 늪도 유적에서는 拔齒 유골도 확인되었다¹⁸⁾.

한편 예안리 고분군 두개골의 평균치는 中頭形으로서 알타이족으로서의 한국인의 체질적 특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류학적으로 한반도 남부 일부지역에 남방 아시아적인 문화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었으므로 편두 풍습은 역시 남방아시아의 영향으로 여겨진다¹⁹⁾.

3) 체격

체격에 있어서는 변한인에 대해서만 '형체가 모두 크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체격에 대한 내용은 바로 앞 구절과 연결하여 보면 '(변한의)독로국은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12국 역시 왕이 있다. 사람들의 형체는 모두 크다.'고 한 것으로 보아 왜 인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인골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 변한지역인 가야인의 평균신장은 남성이 164.7cm, 여성이 150.8cm로 신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²⁰⁾.

한편 마한의 서쪽에 있는 주호국(오늘날의 제주도) 사람들은 마한과 달리 작고 적다는 기록이 있다. 이 구절은 마한인의 체격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는 내용으로서 주호국 사람들이 '短小'한데 비해 '長大'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두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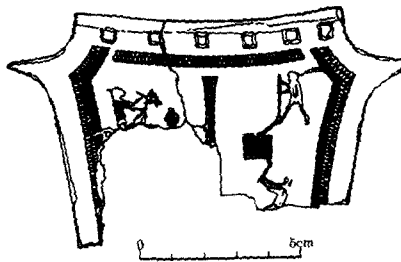
「삼국지」 동이전에는 부여나 고구려의 경우 두발에 대한 내용이 없는 반면, 삼한의 두발풍습에 관하여는 기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삼한의 두발이 기록된 것은 그것이 중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특이한 것으로서 관심을 끌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삼한의 두발양식으로 마한은 魁頭露紒, 변한은 長髮, 진한에서 노예로 종사하는 漢人 포로는 斷髮이라 하였다. 이 삼한의 두발은 왜와도 관련성을 보이므로 왜의 두발을 함께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왜의 구로국에서는 '男子皆露紒 以木髹招頭 婦人被髮屈紒'라 하였다.

(1) 마한의 괴두노계

「후한서」주에 의하면 '괴두는 맨머리이며, 머리카락을 둘러 엮어서 맨머리에 科結(묶음)을 만든 것이다'고 하였다. 즉 '괴두'는 맨머리이며 '노'는 노출시킨다는 뜻이며 '계'는 머리를 묶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괴두노계는 맨머리를 노출시킨다는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흔히 이 구절은 관모를 쓰지 않고 상투를 노출시키고 있는 '날상투'로 표현된다. 그런데 '괴두노계'라는 글귀에 연이어 '경병과 같다'는 구절이 있어 그 형태를 짐작케 한다. 경병이란 군사들의 일종으로 보거나 또는 날카로운 무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후자의 의미로 보면 머리위로 뾰족하게 솟은 형태로 상투를 묶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투머리는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 흉노, 漢,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²¹⁾ 주로 북방계 두발양식에 속한다.

이 괴두노계는 왜의 구로국 남자들이 모두 '노계'

에 목면으로 머리를 감싼다는 기록과 비교해 볼 만하다. 왜의 '노계'는 머리에 관을 쓰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서」 왜인전에는 '頭亦無冠但垂髮以兩耳上' 라 하였으며, 「구당서」 왜인전에는 '百姓皆椎髻無冠帶'라 하였다²²⁾. 하지만 마한의 풍속에 幘을 좋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 과두노계는 일부 한정된 계층이나 시기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낚상투의 모습은 청동기 시대 말기의 농경의례를 나타내는 유물가운데서도 확인된다. <그림 3>의 왼쪽 인물은 상투머리를 노출시키고 있으며, 오른쪽 인물은 머리에 의례용으로 길다란 것 장식을 꽂고 있다.



<그림 3> 농경문 청동기
(이헌해, 한국고대의 생산과 교역, 84)



<그림 4> 신라인의 장발
(1988년도 아세아국제복식학회 전시 사진)

(2) 변한의 장발

변한인의 '장발'은 「후한서」에는 '미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두발을 길게 기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장발은 왜의 부인이 '被髮'한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피발은 곧 머리를 그대로 늘어뜨리는 垂髮과 같다. 하지만 왜에서는 부인만이 피

발한데 비해, 변한에서는 남녀의 구분없이 모두 장발하였다.

변한인의 장발은 공동문화권을 이루는 진한에서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진한지역에서 발견된 신라의 두발양식은 종종 미발로 표현되고 있다. 「태평어람」에 신라인은 미발이 많고 머리의 길이가 한 길이 넘는다고 하였다²³⁾. 또한 삼국시대 신라인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에 의하면 신라인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으며, 그 위에 변형의 관모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4). 그런데 「翰苑」에는 변·진한인은 髻髮이며, 이처럼 머리를 짚은 것은 주호국(<부록> ㉔ 참고)의 풍속을 따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⁴⁾. 이러한 내용은 다른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더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변·진한의 두발양식이 남방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볼 때 마한의 상투머리는 북방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반면, 변한의 장발은 남방적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3)진한 노예의 단발

동이전에 韓의 땅에서 벌목하다 잡힌 漢인들이 斷髮로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염사차 설화가 있다(<부록> ㉕ 참고). 이를 통해볼 때 삼한사회에 있어서 노예계층은 두발을 깎은 단발양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두식

「삼국지」에 기록된 삼한의 두식으로는 오직 마한의 '책'이 있다. 즉 마한 풍속은 의와 책을 좋아하여 하호²⁵⁾가 군에 조알할 때 모두 의와 책을 '假'하였으므로 스스로 인수와 의와 책을 한 자가 천 여명이었다는 내용이다(<부록> ㉖ 참고). 이때는 漢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동안 독립적인 정치력을 지녔던 낙랑·대방 2군이 魏의 관할하에 들어간 시기로서, 魏에서는 郡을 통하여 인수를 사며하고 의와 책을 '假'하는 등 삼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에서 하호가 의와 책을 '假'하였다는 구절은 흔히 하호가 의와 책을 '빌렸다'고 해석되어왔다²⁶⁾.

‘假’는 ‘빌린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이렇게 빌렸다면 왜 ‘스스로 인수와 의와 책을 갖추었다’는 표현이 후술되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續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의와 책을 假하였다’는 의미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趙智重明은 위진남북조 관리의 임명형식에 ‘假’가 사용된 경우에 대해 고찰하면서 ‘假’는 ‘賜與’와 유사한 측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해석하였다²⁷⁾. 하호의 의책에 대한 내용 앞에는 魏 경초중에 중국이 郡을 통하여 여러 한국의 신지들에게 읍군의 인수를 더하여 주었으며(加賜) 그 다음사람에게는 읍장(의 인수)을 주었다(與)는 기록이 있어 賜, 與, 假는 모두 유사한 쓰임새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宋書」 禮志에는 印綬를 ‘假’하고 鞶囊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스스로 갖추어 만들 수 있다(自具作)는 기록이 있는데²⁸⁾, 이것은 마한의 하호들이 의책을 ‘假’하여 인수와 의와 책을 ‘自服(스스로 입는다)’한자가 천 여명이었다는 구절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즉 假한다는 것은 사여와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물건을 직접 사여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자신이 갖추어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앞 구절의 ‘그 풍속은 의와 책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선호한다는 표현만은 아니라고 본다. 의와 책을 假한다는 구절은 조공제도의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조공제도는 정치적 관점뿐 아니라 물자교역을 위한 경제적 측면으로도 이해된다. 즉 중국에 지역 토산품을 조공하는 대신 중국의 물품을 하사받음으로서 물자교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풍속에 의책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물자교역의 측면에서 선진문물인 중국의 의와 책에 대한 마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한인들이 스스로 갖추게 되는 의책이란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교역품으로 사들인 것으로서 신분과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물품이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책은 초기에는 비천한 자만이 착용하였으나 漢의 元帝(기원전 48~33) 이후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착용하였다²⁹⁾. 따라서 관이 아닌 책을 마한인이 좋아하였다는 내용은 중국인의 우월의식

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마한에서 착용하였던 책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고구려의 책을 참고하여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현도군을 통하여 조복과 의책을 받아갔으며, 그후 大加·主簿의 책은 뒤가 없다는 기록이 있다³⁰⁾. 4세기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책은 중국 한대의 책과 유사하면서 뒤의 收가 없어 기록과 그림이 일치하고 있다. <그림 5>의 첫 번째 유형은 주로 포를 입은 자들이 썼으며, 두 번째 유형은 유·고 차림의 인물이 주로 착용하여 상하귀천에 관계없이 널리 착용된 형태이다³¹⁾.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漢代에 상하귀천의 구분없이 쓰였던 평건책과 유사하다(그림 6). 이상의 책은 비록 고구려의 책이지만 마한에서의 책 역시 그와 유사하였을 것이다. 다만 고구려와 비교해 볼 때 마한의 하호는 조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상하귀천의 구별없이 착용된 평건책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진한과 변한의 경우는 관모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렇지만 변진한의 두식에서는 장발이라는 특징적인 면이 부각되었을 뿐이며, 일정한 신분계층이나 특정한 때에는 마한과 마찬가지로 장발 위에 帽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그림 5> 고구려의 책(안악 3호분)



<그림 6> 漢代의 평건책(中國古代服飾研究(上), 95)

3. 의복

삼한의 의복관련 내용은 매우 간략하여 마한의 '布袍'와 변한의 의복이 진한과 같다는 내용뿐이다 (<부록> ㉔, ㉕ 참고). 반면 마한의 서해안에 있는 주호국의 의복에 대하여는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부록> ㉔ 참고). 주호국은 마한의 문화와는 다르지만, 간접적으로 삼한의 의복 유형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주호국에서는 가죽옷을 입으며 상의는 있고 하의는 없어 거의 나체 상태와 같이 중국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그렇다면 삼한의 복식에 대한 기술이 간략한 이유는, 그 의복양식이 중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 중국인에게 있어서 의복이란 반드시 상의와 하의로 구성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³²⁾. 하지만 주호국과 같이 상의만 있거나 왜와 같이 관두의나 천을 그대로 두르는 횡복의³³⁾는 의복에 대한 중국인의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이전의 서두에 기록된 부여의 袍와 袴로 된 상하 2부식의 의복은 이어서 기록된 각국의 의복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삼한의 의복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 부족하므로 「삼국지」 동이전의 전체 내용과 문맥상 연관이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마한의 의복과 관련된 용어는 전술된 부여나 고구려의 기사에 사용된 것과 같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표 3>에서 상호 비교하여 보았다.

마한의 의복으로 기록된 '布袍'는 부여의 '白布大袂袍'와 비교할 수 있으며, 袴에 대한 기록은 없지

만 상하로 된 기본 의복양식을 갖추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부여는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³⁴⁾, 부여의 포·고는 중국의 포·고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포·고는 중국이 고습복을 받아들이면서 의상제도대신 갖춘 것으로서, 호복의 좁은 소매를 중국의 포형상과 같이 넓은 소매로 변화시킨 것이다. 즉 「急就篇」에 습은 重衣의 제일 밖에 입는 것으로, 포 형상에 길이는 짧고 소매는 넓으며 좌입의 포라고 하였다³⁵⁾. 따라서 부여의 소매가 넓은 포와 고 양식은 유·고 양식은 아니지만 고습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에 비해 마한의 포는 재질상으로는 부여와 같은 布로 되어있지만 색채나 형태상에 차이가 있다. 즉 백색을 숭상하는 부여의 특징과는 달리 색을 나타내는 용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백색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를 보이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형태상으로도 부여는 소매가 큰데 비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구려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책과 더불어 조복, 의가 사여되었으나, 마한에서는 의, 책만이 보이며 조복은 보이지 않는다. 이때 의, 책은 인수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조공제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중국의 복식에 해당된다. 또한 변한과 진한에는 의, 책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여러 한국의 신지들에게 인수를 사여한 기록이나(<부록> ㉔ 참고) 마한이외의 지역에서 인이 발견된 점(4. 장신구의 인수에 대한 내용 참고) 등으로 보아 이들 지역에서도 의, 책이 착용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변한의 의복은 진한과 같으며, 깨끗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진한의 복식에 대한 내용이 없어

<표 3> 부여·고구려·삼한 의복의 비교

	부여	고구려	마한	진한	변한
의복	白布大袂袍, 袴	조복, 의, (책)	衣布袍 의, (책)		의복은 진한과 같다 깨끗하다
의복 재료	국내: 흰색을 숭상하여 白布 외국에 나갈 때: 錦繡縉闕 大人: 여우, 삶쟁이, 담비갓옷	공식모임: 錦繡	縹布를 잔다 <錦繡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의복 장식	(帽: 금은장식)	금은장식	구슬 장식 <금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으며, 다만 특이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마한과 마찬가지로 袍와 袴로 이루어진 북방계 복식이었음을 추측할 뿐이다. 깨끗하다(潔淸)는 것은 의복 자체가 청결하다거나 혹은 흰색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³⁶⁾.

이상에서 삼한의 신체적 특성이 남방계 문화적 경향을 지닌데 비해 의복은 북방계 복식의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三韓의 형성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방계 문화의 바탕 위에 북방계 문화가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북방계 주민의 이동설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4. 장신구

1)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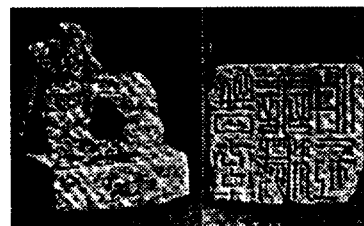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적 세계관으로 이민족에 대한 우월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민족에 대한 덕화의 관념으로 나타나 조공제도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³⁷⁾. 조공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은 이민족에게 爵號와 더불어 인수를 사여하였으며, 魏에서는 경초중(237~239년)에 삼한의 지도자급에게 작호와 인수를 사여하였다(〈부록〉㉔ 참고).

먼저 중국의 인수제도를 살펴보면, 인수에 대한 문헌자료들은 각 시대마다 변화가 많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인수의 제도가 春秋戰國시기에 처음으로 보인다는 데는 일치한다³⁸⁾. 즉 秦 이전에는 모든 백성이 綬를 찢으며 금·옥·은·동·무소뿔·상아로 만든 사방 1寸의 도장(璽)을 각기 지위에 맞추어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인은 대체로 문서의 겹포장을 봉할 때 내용의 기밀보안과 문서 발행자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³⁹⁾. 재질과 꼭지의 형상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끈으로 매어 허리사이에 차거나 혹은 주머니(印囊)에 담았다⁴⁰⁾. 수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략 세손가락 나비로 짠으며 丙丁紋이 있는 絲織로 한대에는 관직에 따라 수의 길이에 장단이 있고 색이 달랐다⁴¹⁾. 그리고 수를 담은 綬囊이 있어 평상시 허리에 차며, 피혁으로 만들어 鞞囊이라 불렀다. 그후 隨·唐代에는 쌍수로 변하여 허리 좌우에 하나씩 찼다. 그리하여 인

수는 漢代 이후 관직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물품이 되었으며, 「輿服志」에 의하면 公候 장군은 金印紫綬, 九卿 中二千石은 銀印青綬, 千六百石은 銅印黑綬, 사백석과 三百石 및 二百石은 銅印黃綬를 착용하였다⁴²⁾.

이러한 인수의 고고학적 유물로는 경북 상주 출토로 전해지는 '魏率善韓佰長'이라고 새겨진 銅印이 있다. 이 동인은 魏에서 韓의 佰長에게 사여한 것으로 높이 2.5cm 한변 2.2cm에 동물형 손잡이가 있으며, 글자가 좌에서 우로 2자씩 3행으로 새겨져 있다⁴³⁾. 韓의 유물은 아니지만 영일에서 발견된 '晉率善穢佰長'이라고 새겨진 晉대의 銅印 역시 높이 2.5cm 한변 2.3cm에 동물형 손잡이로 2자씩 3행으로 새겨져 있다⁴⁴⁾(그림 7).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동인만이 출토되었지만, 왜의 경우 「삼국지」에는 경초 2년(238)에 邪馬臺國의 여왕이었던 卑彌呼가 金印紫綬를 받았으며, 그 신하로 조공사절로 갔던 難升米나 牛利가 銀印青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출토유물과 문헌자료를 근거로 볼 때 삼한의 '스스로 인 수와 의책을 한 천여명' 가운데 '佰長'급은 동인을 소지하였을 것이며, 또 왜와 비슷한 등급의 계층은 각각 금인, 은인을 소지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⁴⁵⁾.

수는 중국의 武梁祠 漢代 석각 등에서 볼 때 앞쪽이나 옆쪽에 매여져 있다(그림 8). 우리나라에서도 삼한은 아니지만 4세기 중엽의 고구려 안악 3호분의 벽화 인물은 머리에 책을 쓰고 허리에 수를 찬 모습이 확인된다(그림 9). 이 그림에서 비록 인은 보이지 않지만 수와 함께 패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7> '晉率善穢佰長'의 동인
(고고미술, 통권 78호, 264)



<그림 8> 漢武梁祠石刻畫像의 수
(中國古代服飾史, 82)



<그림 9> 고구려의 수
(안악 3호분)

2) 구슬, 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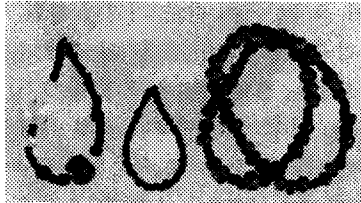
삼한의 의복 장신구 풍속은 부여, 고구려 및 중국과는 달리 구슬을 선호하였으며 금은을 선호하지 않았다(〈부록〉㉔ 참고). 이러한 풍습은 <표 3>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여에서 帽에 금은 장식을 한다거나, 고구려에서 의복에 금은 장식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중국에서도 魏의 公侯나 大將軍이 금은 장식으로 새겨진 옷을 입었다는 기록⁴⁶⁾으로 보아 당시 금은 장신구는 중국이나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장신구였던 것이다.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에 걸고 귀에 늘어뜨린다는 기록은 마한에서만 보이지만 출토유물이 삼한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삼한사회의 공통적 특징으로 보인다.

고고학적으로도 3세기까지의 출토유물 중에는 수정제, 호박제, 유리제 구슬(옥)이 주로 출토되었으며, 금속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삼한지역에 있어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대 와질토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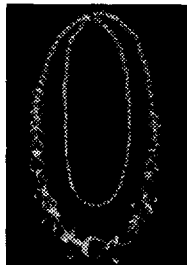
동반되는 유물들을 분석한 최종규⁴⁷⁾의 연구에 의하면, 전기에는 주로 남색의 등근 유리제 소옥이 후기에는 수정제 다면옥이 출토되어 「삼국지」에 기록된 마한의 구슬은 후기의 수정제 구슬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구슬장신구는 청동기시대에도 사용되었지만 이 때에는 천하석이 주류를 이루어 삼한사회의 구슬류와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출토된 삼한지역의 유물중에는 마한 지역인 청원 송대리 출토의 유리구슬(그림 10), 2세기로 추정되는 김해 양동리 출토의 수정제 다면옥 목걸이(그림 11), 김해 대성동 18호묘의 비취 벽옥제 귀걸이(그림 12), 그 외 의복에 달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곡옥이나 다면옥 등의 다양한 구슬류들이 있다. 수정 장신구는 특히 영남지역 분묘에서 많이 출토되는데, 이는 영남지역일대에 풍부한 수정산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⁴⁸⁾. 그러나 경남일대 분묘의 구슬류 장신구는 4세기에 들어서면 감소하는 반면 5세기대에는 금속공예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신라가 고구려와의 적극적인 교섭에 의해 기술을 유입한 것으로 해석된다⁴⁹⁾.

삼한사회에서 구슬 장신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된 바 있다. 김태식⁵⁰⁾은 삼한인의 장신구 욕구가 부여나 고구려와는 다른 이유는 그들의 사치품 수요가 중국에 물품에 대한 무조건적 선호가 아니라 자생적 계급성장에 따라 유발된 것이며, 귀족층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구슬을 선호하는 것이 어떤 주술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것일 수 있음도 제기하였다. 구슬이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청동기시대 이래의 습속으로서 청동기시대 족장들이 대롱구슬이나 天河石制飾玉을 상징물로 착용한 예가 있지만⁵¹⁾, 삼한사회에서도 이러한 주술적인 의미가 남아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에는 이처럼 구슬을 선호하는 풍습을 교역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최종규⁵²⁾는 소옥이 반출된 무덤의 부장품이 풍부한 것으로 보아 지배계층의 묘의 장신구로서 교역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현혜 역시 2~3세기경에 유행한 수정제 다면옥은 낙랑 및 중국상인에 의해 유입된 교역품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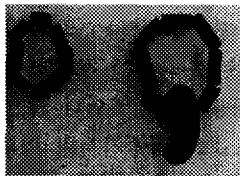
이며, 그 증거로 양동리 332호에서는 구슬과 함께 중국계 청동술도 출토되어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뒷받침해준다고 하였다⁵³⁾. 이상에서 볼 때 삼한사회는 중국이나 부여 및 고구려와는 다른 문화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중국과의 교역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림 10> 유리구슬
(특별전 백제, 15)



<그림 11> 수정목걸이
(박물관 이야기, 20)



<그림 12> 비취 벽옥제 귀걸이
(김해의 고분문화, 36)

5. 신

「삼국지」에는 마한인의 신과 관련하여 '足履革蹠蹠'이라는 기록만이 보이며, '革蹠蹠'는 일반적으로 가죽신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후한서」에는 가죽신이 아닌 '草履'로, 「晉書」 역시 '履草蹠'으로 기록되어 있다. 후자는 그 이유를 '革'자와 '草'자

가 비슷하기 때문에 「삼국지」의 '履革'이 「후한서」에 '草履'로 잘못 옮겨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⁴⁾. 하지만 '蹠'은 '다리를 높이 들고 씩씩하게 걷는다' 또는 '草履'를 의미하므로 '足履革蹠蹠'은 '가죽신을 신고 씩씩하게 걷는다' 또는 '혁리와 초리를 신고 걷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전자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그 앞 구절에 마한인의 성품이 강하고 용맹스럽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부록 ②〉 참고). 또 한편 「후한서」의 편자가 후자의 의미를 염두에 두었다면, 의도적으로 '革' 대신 '草'를 썼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한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革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草履도 있었으며, 점차 革履는 사라지고 草履를 신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직물

「삼국지」에는 삼한의 직물과 관련하여 마한에서는 蠶桑을 알며 絺布를 짜고, 진한에서는 縑布, 변한에서는 縑布와 弁韓布 및 廣幅細布가 생산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부록 ②, ③, ④, ⑤〉 참고). 하지만 마한에서는 錦繡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여 특이한 점으로 강조하고 있다(〈부록 ⑥〉 참고).

여기에 소개된 각 직물명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면 면포는 오늘날의 목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견직물서, 絺이란 누에고치로부터 실을 뽑아낸다는 뜻이거나 또는 비단솜(풀솜)을 의미한다. 변한포는 진한인 우거수 염사치가 낙랑에 弁韓布 15000필을 거두어 간 기록에서 보인다. 이 사건은 종종 1세기에 낙랑과 삼한의 교역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염사치라는 교역인을 통하여 인력과 변한포가 교역되는 사실을 전해준다고 추정되기도 한다⁵⁵⁾. 대마직물이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마직물인 점을 고려할 때⁵⁶⁾ 변한포 역시 대마직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후술된 변한 생산의 광폭세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원단이나 심의 등 예복을 만들 때 衣와 소매길이가 2척 2촌으로 광폭을 필요로 하였으며 또 가는 포를 사용하였으므로⁵⁷⁾, 이 광폭세포는 당시 중국과의 교역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겹포는 并絲로 매우 치밀하게 짠 평견직물로

중국에서는 漢代 이후 선물이나 상을 줄 때 사용되어 귀하게 여겨졌으며, 魏에서는 鹿皮 대신에 縑帛으로 모자(帽)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보아⁵⁸⁾ 가죽 대용으로 치밀하고 두텁게 짜여진 직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漢代 유물중 경사가 위사의 2배되는 겹이 출토되었는데⁵⁹⁾, 진·변한의 겹포 역시 그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수는 마한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삼한 전체에 공통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 당시 北朝의 귀족들은 의복에 금, 수 등의 장식을 즐겨 사용하였으며⁶⁰⁾, 부여나 고구려에서도 금수를 귀히 여겼으므로 이 기록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구절은 직물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소비적 측면에서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과 삼한과의 교역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삼국지」 동이전의 복식관련 기사를 통하여 고대 삼한사회 복식의 실상에 접근하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우리 복식문화에 다양한 문화적 특성이 존재하였음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1. 먼저 「삼국지」에 기술된 삼한의 복식문화를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문신 풍습은 삼한에 공통적이지만 고유의 풍습은 아니며 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얼굴을 제외한 신체에 入墨하여 무늬를 새겨 넣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편두 풍습은 변한과 진한의 공통적인 풍속이며, 당시 진한인의 남자는 모두 편두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마한이나 변한인은 체격이 크며, 이러한 체격은 인접한 주호국이나 왜의 작고 적은 체격과 비교되고 있다.

마한인의 두발 양식인 魁頭露紒는 맨머리에 머리 카락을 둘러 엮어서 묶음(科結)을 만든 것으로, 관모를 쓰지 않은 날상투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변한인의 '長髮'은 「후한서」에는 '美髮'로 기록되어 있으며, 삼한사회 노예계층의 두발은 단발양식이었다.

두식으로 사용된 마한의 '幘'은 중국의 郡에서 '假'한 것으로, 그 의미는 '賜與'제도와 관련되지만 직접적으로 사여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스스로 갖추어 입도록 하였던 것이다. 마한인의 풍속이 의와 책을 좋아한다는 점과 또 이것을 스스로 갖추어 입는다는 점으로 보아, 이 물품들은 신분과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으로부터 교역품으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마한의 의복인 '布袍'는 부여의 '白布大袂袍'와 비교해 볼 때, 재질상으로는 같은 布로 되어있지만 부여의 포가 흰색이며 큰소매인 것과 구별된다. 변한의 의복은 진한과 같다고 하였으며, 또 청결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의복이 깨끗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백색을 선호한다는 의미도 된다.

魏에서는 삼한의 지배계층에 印綬를 사여하였는데, 삼한에서는 銅印만이 출토되었지만 그 외에도 금인, 은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는 인과 함께 허리에 차는 絲織이며 4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수를 참고할 수 있다.

마한에서는 의복 장신구로 금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달거나 목에 걸고 귀에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삼국지」 기록 당시의 구슬이란 주로 수정계 구슬류를 의미하며, 고고학적으로도 3세기까지 삼한 전역에 걸쳐 수정계, 호박계, 유리계 구슬(옥)이 출토되는 반면 금은계 장신구는 출토되지 않는다.

마한인이 착용한 신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革履와 草履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점차 草履를 신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삼한의 직물로는 마한에서는 縣布, 진한에서는 縑布, 변한에서는 縑布와 弁韓布 및 廣幅細布를 생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반면 마한에서는 錦繡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직물관련 기사는 중국과의 교역관계적 측면에서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2. 삼한의 복식문화는 삼한간에, 그리고 주변국과 비교해 볼 때 공통성과 더불어 독자성이 발견되어진다.

삼한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으로는 변·진한이 마한에 비해 남방문화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이다. 즉

문신풀음이 마한보다는 변·진한에 더욱 확산된 경향을 보이는 점, 변·진한인의 편두 풍습, 두발양식이 마한은 날상투인데 비해 변진한은 장발인 점 등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또 「삼국지」에는 마한의 풍습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고고학적 유물로 볼 때 삼한에 공통적인 특징으로 입증된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魏에서 한국의 신지들에게 사여한 印綬와 의복 등 중국복식이 착용된 점, 금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구슬 장신구를 선호하는 풍습, 錦繡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점 등은 공통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변국과 비교해 볼 때 삼한은 중국이나 부여, 고구려와는 다른 독자적인 복식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독자성은 문화가 발전하였던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대상으로 혹은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재되기도 하였다. 당시 중국이나 부여, 고구려에서는 금은 장신구와 錦繡의 직물을 귀하게 여겼으나 삼한에서는 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는 기술적, 교역적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또 마한의 하호들이 冠이 아닌 幘을 쓰기를 즐겨한다는 표현은 중국인의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에 비해 포·고의 북방계 의복양식, 의와 책과 인수 등 중국복식의 영향 등은 부여·고구려와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이상에서 고찰된 삼한사회의 복식문화에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신, 편두 및 장발의 풍습은 남방계문화의 특성이며, 魁頭露紒의 두발양식과 부여와 같이 袍·袴로 된 의복양식 및 革履는 북방계 문화의 특성으로 고찰되었다. 또 衣와 幘과 印綬는 중국으로부터 갖추어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假) 것으로 漢문화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 외에 구슬을 귀하게 여기고 금은이나 錦繡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습은 당시 중국이나 부여, 고구려 등과는 구별되는 삼한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통상 삼한사회를 부족국가로 불러왔으나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준 국가단계로서 군장사회, 성읍국가, 소국연맹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문기, 신라 상고기의 통치조직과 국가형성 문제,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0, 248~256쪽).
- 2)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46~48쪽.
- 3) 김양욱, 삼한의 형성과 문화적 배경-변·진한을 중심으로-, 「한국고고·고대사연구논선4」, 불광출판사, 2000, 294~311쪽.
전해중, 「한국과 중국」, 지식산업사, 1979.
- 4) 정승재, 신라, 가야의 관모류에 대한 일고찰: 고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진미희, 한국 고대 관모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그 외 삼한의 장신구 관련 연구들은 본문의 장신구에 대한 내용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 5) 「삼국지」는 西晉의 陳壽(231~297)가 편찬한 것으로, 이후 劉宋의 文帝(424~452)가 裴松之로 하여금 증보를 가한 것이다.
- 6) 신현웅, 「후한서」한전 기록에 대한 일고찰-「삼국지」한전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7) 전해중, 「동이전의 문헌적 연구-위략·삼국지·후한서 동이관계 기사의 검토-」, 일조각, 1980.
- 8)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218~220쪽.
- 9) 김태식, 가야사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한국고대사논총」 2, 1991, 214~218쪽.
- 10) 가야사의 시기구분은 4세기 이전의 전기가야와 5~6세기의 후기가야로 구분된다(김태식, 가야사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한국고대사논총」 2, 1991, 45~49쪽).
- 11) 「삼국지」 동이전에는 1세기에 진한의 右渠師 廉斯 籛과 廉斯사람 蘇馬諶가 낙랑과 교류한 기록이 있으며(〈부록〉㉔ 참고), 고고학적으로도 1세기 전반경에 한반도 남부 특히 변한지역과 낙랑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백승충, 앞의 글, 23~24쪽).
- 12) 이 설은 「삼국지」에 고조선이 위만 왕조로 교체되면서 기자조선의 準王이 쫓겨 남하하여 韓왕이 되었다는 기록이나, 진한은 秦役을 피해온 '古之亡人'의 후손이라는 기록에 근거하였다.
- 13) 신현웅, 「후한서」한전 기록에 대한 일고찰-「삼국지」한전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52~56쪽.
- 14) 水野 祐, 「評(釋) 魏志倭人伝」, 東京: 雄山閣, 1992, 183~184쪽.

1) 통상 삼한사회를 부족국가로 불러왔으나 그에 대한 비

- 15) 이견무, 청동기·원삼국시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한국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국립청주박물관, 2000, 167~168.
- 16) 전해중, 「한국과 중국」, 지식산업사, 1979, 33쪽.
- 17) 부산대학교 박물관 편집, 「김해의 고분문화」, 김해시, 1988.
- 18) 김양옥, 앞의 책, 2000.
- 19) 김정학, 김해 예안리 85호분 출토 편두골에 대하여-위지 한전의 편두기사와 관련하여-, 「한우근박사 정년 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11-25.
- 20) 부산대학교 박물관 편집, 앞의 책.
- 21) 김용문,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212~218쪽.
- 22) 水野 祐, 「評(釋) 魏志倭人伝」, 東京: 雄山閣, 1992, 227쪽.
- 23) 「太平御覽」 卷781 四夷部 東夷 新羅條, “秦書曰……其人多美髮 髮長丈餘”
- 24) 「翰苑」 卷第30 蕃夷部 三韓, “居城識秦人之風 髡髮驗州胡之俗”
- 25) 하호는 고구려나 부여에서는 음악의 수장인 豪民에 대해 하위계층으로서 奴僕같은 존재로 여겨졌지만, 삼한에서는 개별적으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계층으로서 파악됨으로서 계급분화가 불분명한 상태임을 반영해준다(김태식, 가야의 사회발전단계,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한국고대사연구회, 1990, 29쪽).
- 26) 의책을 빌렸다고 해석함으로써, 고구려와 부여에 비해 삼한의 정치발전 수준이 미성숙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김태식, 위의 책, 28~29쪽).
- 27) 武田佐知子, 「古代國家の形成と衣服制-袴と貫頭衣-」, 東京: 吉川弘文館, 1984, 210~213쪽.
- 28) 「宋書」 禮志, 재인용, 위의 책, “諸假印綬而官不給鞶囊者 得自具作 其但假印不假綬者 不得佩綬”
- 29) 王宇清, 「中國服飾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1967, 72쪽.
- 30) 「三國志」 卷30 烏丸鮮卑 東夷傳 高句麗, “漢時賜鼓吹技人 常從菟菟軍受 朝服衣幘 …… 大加主簿頭着幘如幘而無後”
- 31) 정완진·이순원, 고구려 관모 연구, 복식 23, 1994, 158쪽.
- 32) 「周易」 繫辭傳에 “黃帝, 堯, 舜은 衣裳을 내려 天下를 다스렸다. 대개 그것은 乾坤에서 취한 것이다”고 하였다. 衣는 乾 곧 天을 상징하고, 裳은 坤 곧 地를 상징한다. 이러한 천지승배사상에 의해 생겨난 上衣下裳의 양식은 고대 중국 복식의 기본양식이 되었다.
- 33) 「三國志」 卷30 魏志 東夷傳 倭人傳, “作衣如單被 穿其中央 貫頭衣之”
- 34) 한국사4,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국사편찬위원회, 1997, 227쪽.
- 35)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上海: 中國戲劇出版社, 1983, 65쪽.
- 36) 오세은, 삼국시대의 문헌상에 나타난 색채-복색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17쪽.
- 37) 전해중, 한국과 중국, 지식산업사, 1979, 51~52쪽.
- 38) 周汎·高春明 編著, 「中國衣冠服食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6, 452쪽.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上海: 中國戲劇出版社, 1983, 82쪽.
- 39)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1998.
- 40) 周錫保, 앞의 책, 122쪽.
- 41) 龍田文化出版社編輯部編, 「中國古代服飾研究」 上, 臺北: 龍田文化出版社, 1981, 77쪽.
- 42) 周錫保, 앞의 책, 79쪽.
- 43) 선석열, 고대 銘文의 해독과 분석, 「유물에 새겨진 고대문자」,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7, 62쪽.
- 44) 梅原末治, 晉率善穢佰長 銅印, 「고고미술」, 제8권 제1호 통권78호, 한국미술사학회, 1967, 263~264쪽.
- 45) 문창로는 대국의 臣智급은 금인, 소국의 傭借급은 은인, 소별읍과 일반읍락의 槩帥는 동인을 소지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였다(문창로, 「삼한시대의 음악과 사회」, 2000, 172~174쪽).
- 46) 魏志 夏侯傳 “自公列侯以下 位從大將軍以上 皆得服綾錦羅綺紈素金銀飾鑲之物…”
- 47) 최종규, 「삼한고고학연구」, 서경문화사, 1995, 171~174쪽.
- 48) 「고대장신구-아름다움과 힘의 조화」,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9, 28쪽.
- 49) 부산대학교 박물관, 「선사와 고대의 문화」, 1996, 91쪽.
- 50) 김태식, 가야의 사회발전단계,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한국고대사연구회, 1990, 63~64쪽.
- 5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국사편찬위원회, 1997, 289쪽.
- 52) 최종규, 삼한의 장신구, 「소현 남도영박사 고회기념 역사학논총」, 1993, 10쪽.
- 53) 이현혜, 삼한의 대외교역 체계, 「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上)」, 1994.
- 54)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225쪽.
- 55) 백승옥, 가야 대외교섭의 전개과정과 그 담당자들, 「가야의 대외교섭」, 제5회 가야사 학술회의, 1999, 81~102쪽.
- 56) 정완섭, 직물의 기원과 교류에 관한 연구-천연섬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97쪽.
- 57) 「禮記注疏」, 深衣, “案雜記云 朝服十五升 此深衣與

朝服相類 故用十五升布鍛濯”

정혜경, 「심의」, 경남대학교 출판부 출판부, 1998, 183~186쪽.

58) 周錫保, 앞의 책, 133쪽.

59) 조호숙, 한국 건직물 연구-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13쪽.

60) 周錫保, 앞의 책, 136쪽.

〈부록: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복식관련 내용〉

㉔ 馬韓在西 其民土著種植 知蠶桑 作絺布

마한은 서쪽에 있으며 그 백성은 토착민으로 곡식을 심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 줄을 알고 면포를 짠다.

㉕ 魏略曰.....至王莽地皇時 廉斯鐵爲辰韓右渠師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男子曰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 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乃出辰韓萬五千人 弁布萬五千匹 鎡收取直還 郡表鎡功義賜冠幘田宅

위략에 이르기를.....왕망의 지황때(20~23)에 염사착이 진한의 우거사가 되어 낙랑의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들이 풍요롭고 안락하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서 항복하고자 하였다. 남자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漢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戶來이다. 우리들 천오백명이 재물을 벌채하다가 韓의 습격을 받아 포로가 되어 모두 머리를 깎이고 노예가 된지 3년이나 되었다” (진한이) 진한사람 만오천명과 변한포 만오천필을 내어놓자 염사착은 그것을 거두어 곧바로 돌아갔다. 군에서는 치의 공적을 살피어 표창하고 冠幘과 밭과 집을 주었다.

㉖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 樂浪太守鮮于嗣 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 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 千有餘人

경초중(237~239)에 명제는 대방태수 유흔과 낙랑태수 선우사를 은밀히 보내어 바다를 건너 2군을 평정하고 여러 한국의 신지들에게 읍군의 인수를 더하여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읍장(의 인수를) 주었다. 그 풍속은 의책을 좋아하여 하호들이 군에 가서 조알할 때 모두 의와 책을 가(假)하였으므로, 스스로 인수와 의책을 한 자가 1천여

명이었다.

㉗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 其人性彊勇 魁頭露紒 如戾兵 衣布袍 足履革鞮 鬪 (마한)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에 걸고 귀에 늘어뜨리기도 한다. 금은이나 금수는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성품이 매우 강하고 용맹스럽다. 머리카락을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내는데 마치 경병과 같으며, 베로 된 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고 씩씩하게 걷는다.

㉘ 其男子 時時有文身

(마한의) 남자는 때때로 문신을 한다.

㉙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豬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주호국은 마한의 서해상의 큰 섬에 있다. 그곳 사람들은 달리 작고 적으며 언어가 한과 같지 않으며 모두 선비와 같이 머리를 깎고 다만 가죽옷을 입으며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는데 옷은 상의는 있고 하의는 없어 거의 나체 상태와 같다.

㉚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絺布

(진한, 변한)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당하다.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는 법을 알아서 견포를 짠다.

㉛ 兒生 便以石壓其頭 欲其褊 今辰韓人皆褊頭 男女近倭 亦文身

(진한, 변한) 아이가 태어나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만들려 한다. 지금의 진한인은 모두 편두이다. 왜와 가까우므로 남녀는 역시 문신을 한다.

㉜ 弁辰 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 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其人形皆大 衣服潔清長髮 亦作廣幅細布

변진(변한)은 진한과 서로 섞여서 산다. 이곳에도 성곽이 있고, 의복과 거처는 진한과 같다. 언어와 법속도 서로 유사하나 귀신을 제사하는데 있어서는 다르다. 그 사람들의 형체는 모두 크고 의복은 깨끗하며 머리는 길게 기른다. 또한 광폭세포를 짠다.